

전남 시장·군수, 균형발전 현안 해결 머리 맞대

진도서 6차 협의회 10개 안건 의결
시·군 간 소통, 현안사항 대안 마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 3일 진도 솔비치 호텔&리조트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댔다. 민선 7기 여섯번째를 맞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는 ▲폐기물처리분담금 교부금 시·군 교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 대비 보상비 국고 지원 ▲대규모 공공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입법화 등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상임부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시장은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가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알고 있다"며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이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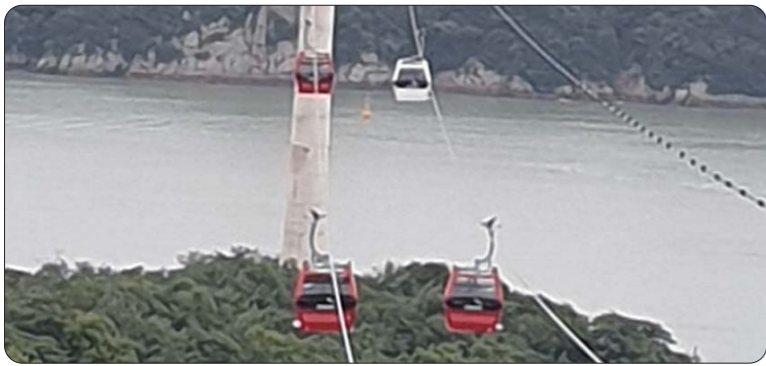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앞장서서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협의회와의 당면과제인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전남 22개 시·군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진도에서는 협의회에 이어 김영록 도지사 와 22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두번째 전남도와 시·군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담당=정태원기자 jth7808@srb.co.kr



장흥군, 자기계발 '통기타 프로' 인기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은주)이 운영하는 '2019 자기계발 통기타프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외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은 지난 6월부터 8월 말까지 주 2회, 1일 2시간씩 통기타의 기본 연주법, 코드 변환법 등을 배워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고 녹음을 해보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평소에도 센터에 자주 나와 연습하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꿈드림 측은 설명했다. 한 학생은 "내년에도 드럼, 목공예, 외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공부방 '스마트 교실'도 운영 중이다. 담당=김양환기자 hur5101@sr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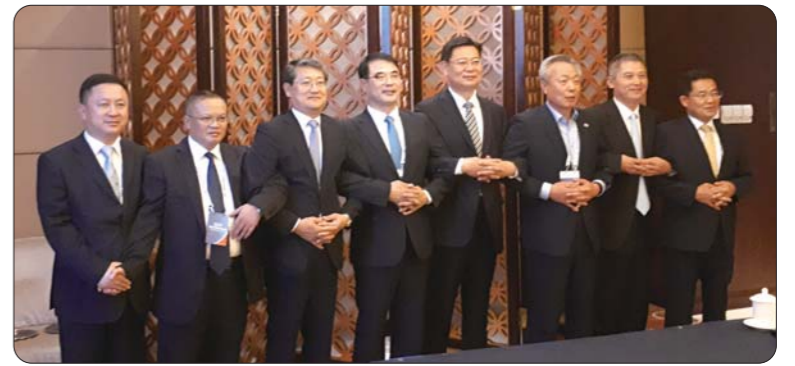
목포해상케이블카 7일부터 정상영업

목포시는 '남만항구 목포'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목포해상케이블카가 7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가 관광객을 맞는다고 5일 밝혔다. 다만, 6일 오후 2시 북항 승강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제 13호 태풍 '링링'의 복상으로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참석하지 않고, 목포해상케이블카주관계자 위주로 실내에서 축소 개최할 예정이다. 또 개통식 당일엔 정상 영업을 하지 않으며, 당초 예정됐던 참석자 대상 시승식도 안전을 위해 취소했다. 실질적인 정상영업은 7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당일 기상상황에 따른 정상운영 여부는 목포해상케이블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일반적 피뢰설비와 달리 낙뢰보호 반경이 5~10배 넓은 광역피뢰 설비를 적용해 낙뢰를 대비하고 있다. 기존 풍속을 초과한 강풍 발생시 자동으로 운영을 정지하는 등 관련 행동 매뉴얼에 따라 안전조치 후 운영을 재개하는 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시는 임시주차장 확대 조성 및 셔틀버스 운행,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교통시설 정비,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케이블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목포=백만성기자 mspark214@srb.co.kr



나주시, '올해 전기차 700대 시대' 도전

전남지역 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 1위를 자랑하는 나주시가 올해까지 '전기차 보급 누적 대수 700대 시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 관심이이다. 나주시는 올해 전기차 290대 보급을 위해 민간보급사업 예산 51억6천 만원을 확보하고 상반기 190대에 이어 하반기에 1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총 100대로 계획된 하반기 전기차 보급 신청서는 오는 9일부터 접수 받는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최대 1천78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2월21일부터 현재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환경부 인증 전기자동차 누리집에 등재된 차종 중,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종에 한해 지원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주민은 먼저 제조·판매사(영업소·지점)에 구매계약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된다. 나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올 상반기까지 전기차 509대를 보급·완료했다. 하반기에 전기차 100대를 추가로 공급하면 나주시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700대를 넘어설게 된다. 전기차 700대는 나주시가 오는 2025년까지 계획한 '전기차 3천대 보급' 목표치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며, 전남지역 내 전기차 보급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김진석기자 suk1586@srb.co.kr



구례·하동·남해군, 중국 3개 도시와 협약

영호남 이웃사촌 구례군과 경남 하동·남해군이 중국 산둥·구이저우성 3개 도시와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행정·경제·문화·과학기술 등의 교류를 통한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한중도시발전연맹을 창설했다. 5일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하동·남해군 등 3개 자치단체는 전남 '2019 세계한상지도자대회'가 열린 중국 산둥성 칭다오 신강원도호텔에서 칭다오시의 칭양구, 라이시시, 구이저우성 안순시의 관랑자치청 등 중국 3개 도시와 한중도시발전연맹 설립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윤상기 하동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양차오 칭양구 부구청장, 지양수웨이청 라이시시장, 웨이조우하우 관랑자치청장 등 6개 단체장이 협력협약서에 서명하고 양국 도시의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도시발전연맹은 동북아시아에서 바다를 마주보고 공존하며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6개 지방정부가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통해 양국의 경제번영과 공동발전을 촉진하고자 결성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6개 지방정부는 도시연맹의 고위급 교류를 시작으로 정부·국민간 우의 증진, 정부간 협력체제 구축, 분야별 교류, 다자간 상호 융합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례=오인석기자 gunguck@srb.co.kr



화순군, '국화향연' 세부계획 결정

화순군은 지난 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축제추진 위원 회의를 열고 '2019 화순 국화향연' 세부 계획을 안을 결정했다. 군은 올해 국화향연의 문화관광체육부 대표 축제 선정을 목표 6개 분야 45개 단위 사업을 추진한다. 국화향연을 찾는 관람객이 함께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국화동산 조성 계획과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해 국화향연에 관한 평가 용역, 장단점 분석, 전문가의 자문과 컨설팅,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 국화향연의 6개 분야 45개 단위 사업을 확정했다. 올해는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보로로 조형물 전시와 유인 로봇 로드 쇼, 김삿갓 관련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신파극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화순=추교윤기자 sh0434@srb.co.kr



홀몸어르신에 김자반세트 전달

(사)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회장 마삼섭)가 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김자반세트 100박스를 강진군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정을 함께 나누고 이들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이승욱 강진군수와 효도회원들은 군청 현관에서 전달식을 연 후 11개 읍·면 홀로 사는 어르신 100가구에 물품을 배포했다. 마삼섭 회장은 "명절이면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에게 작지만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분들이 정을 느낄 수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한국효도회 강진지역회 활동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군에서도 여민동라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원준기자 jun097714@srb.co.kr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10월 26일' 개최

여수시는 제13호 태풍 '링링'의 복상에 따라 연기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오는 10월26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여수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축제추진위, 용역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마칭페스티벌·동동북축제·여순사건합동추념식 등 9~10월 행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과 SNS, 시 홈페이지 등에 축제 변경 일자를 홍보할 계획이다.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 '여수와 사랑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타워크레인 불꽃과 나비 모형 불꽃 등을 축제에 새롭게 도입, 주제를 부각하고 화려함을 더할 계획이다. 여수=강명수기자 kms3056@srb.co.kr

순천 '웃장 국밥 축제' 8일 열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순천 '웃장 국밥 축제'가 열린다. '웃장 국밥'은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으로, 맛과 푸짐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웃장이 순천지역 대표 음식거리로 자리잡았다. 순천시는 오는 8일 순천 웃장 국밥 골목과 아재전 광장 일원에서 '2019 순천 웃장 국밥 축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웃장 국밥 축제'는 2012년에 시작해 8회째로 올해는 20여 개의 웃장 국밥집이 참여한다. 6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웃장 국밥'은 일반 국밥과 달리 돼지 내장을 사용하지 않고 삶은 돼지머리의 살코기만을 재료로 사용해 그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한 그릇에 7천원짜리 국밥 2인분을 주문할 경우 수속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해 줘 그 맛과 푸짐함이 입소문을 타고 웃장이 지역 대표 음식거리로 자리잡았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